

영암호 통신문(通船門) 논란 가열

“관광산업 활성화” “운하사업 신호탄”

배수갑문에 폭 20m·높이 8.5m 설치 목포신항~광주 승촌보까지 뱃길 열려

“집체된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사업이다” “영산강을 시작으로 정부의 운하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와 전남도가 영산강 유역 영암호에 통신문(通船門)을 설치키로 하면서 수그러드는 듯 싶었던 대운하 논쟁이 재점화됐다. <통신문으로 목포신항~광주 승촌보 연결=통신문은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중인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에 포함돼 진행될 예정이다.>

구조개선사업은 영산강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2년까지 6189억원을 들여 ▲영산강하구둑 배수갑문과 ▲영암호 배수갑문을 확장하고 ▲영산~영암호간 연락 수로를 넓혀 담수호간 홍수량을 분배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3개 공구에서 진행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5% 수준이다.

정부와 전남도는 이 가운데 영암호 배수갑문을 80m에서 410m로 넓히면서 폭 20

m·길이 70m·높이 8.5m짜리 통신문을 함께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문 설치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반영돼 있지 않았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하면 2012년까지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이렇게되면 황포돛배와 요트뿐만 아니라 500t급 관광유람선과 1000t급 여객선이 오갈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정부 사업비(2236억)와 시공사의 도급액(1533억) 차인 낙찰차액으로 추진하고 배수갑문 개폐시 물 빠짐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외에는 준설도 필요없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현재 15m인 영산~영암호간 연락수로(5.6km)를 140m로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중인데다, 연락수로에 부채꼴로 여담는 폭 60m짜리 선박통행용 수문도 설치될 예정이다.

결국 영암호 배수갑문에 통신문 하나만 더 설치하면 목포신항에서 영암호~영산호 및 통신문이 있는 죽산보를 통과해 승촌보

■ 영암호 통신문 설치 개념도



까지 운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운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운하 건설 시작? vs 뱃길 복원 및 관광 활성화>=환경단체를 비롯 4대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암호에 통신문을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4대강 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20m 통신문이면 5000t급 배도 왕래가 가능한 규모”라며 “준설과 보가 완공된 시점에 영암호에 통신문을 만들어 운하사업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전남도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민여론을 왜곡하고 있

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운하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을 정부가 입장을 선화, 통신문 설치로 바꾼 것은 다른 강 유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점에서 ‘운하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통신문은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운하 사업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영산강 하류의 영산호(폭 6.6m·높이 11.9m), 영암호(폭 6.6m·높이 8.24m)에 설치된 통신문은 폭이 좁아 큰 배는 다닐 수 없어 통신문을 넓혀야 영산강 일대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암호 통신문 설치는 농촌과 도시, 자연과 인간, 강과 바다를 연결 시킴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공항 KTX 경유 여부가 광주공항 국내선 유치보다 중요”



22일 무안군을 순방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무안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박준영지사 도민과의 대화

최근 군산공항 국제선 추진 등으로 무안공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근본적인 방안으로 KTX의 무안공항 경유와 국제선 유치가 있다고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지사는 22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광주공항 국내선 유치보다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대단위 SOC사업은 10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하되 “제주까지 잇는 해저터널 건설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는 필수사항”이라며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정부의 호남고속철 노선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제주공항의 연간 이·착륙 불가일 수는 100일이 넘지만 무안은 13일밖에 되지 않아 KTX만 무안공항을 경유한다면 제주의 수요를 흡수하게 돼 국제공항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매우 높다”며 “정부에 이같은 뜻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2014년 호남고속철이 완

공되면 공항 국내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국내선 이전문제로 광주시와 갈등을 빚는다면 시·도민 모두에게 손해”라며 “경상권의 경우 KTX 건설이후 국내선 수요가 40%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 신규노선 유치와 저가 항공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무안공항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안공항은 위치상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해 화물 거점을 비롯해 항공기 수리 클러스터 등 경쟁 잠재력이 높다”며 “국가간 항공협정시 무안공항에 ‘이원권’ 배분을 요청해 국제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권은 항공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국내지점에서 다시 제3국의 국내지점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로, 이원권을 확보할 경우 환승 및 환적수요를 유치할 수 있다.

박 지사는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가 무안공항을 거쳐 미국 등 미주노선으로 가는 이원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 나라와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8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저가 항공사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밤 늦은 시간 호텔 바로 불러내기도 정운찬, 일 때문에 만난 것 같진 않아”

신정아씨 자전 에세이 실명 언급 파문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9) 씨가 22일 자전 에세이 ‘4001’(사월의 책 펴냄)을 펴냈다.

이 책은 2007년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쓴 일기를 중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예일대 박사학위 수여의 전말은 물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만남, 동국대 교수 채용 과정과 정치권 배후설, 일부 인사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언급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신씨는 또 사건 당시 제기된 자신의 급부상에 대한 배후설, 서울대 교수직 제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신정아 씨가 2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자전 에세이 ‘4001’ 출간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보던 정 총장의 인상과 실제로 내가 접한 정 총장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달랐다’의 의미는 혼란스러웠다는 뜻이다. 정 총장은 처음부터 나를 단 순히 일 때문에 만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만나려고 일을 핑계로 대는 것 같았다.”(100쪽)

신씨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책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책에 일부 실명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 “실명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앞뒤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실명, 일부는 이니셜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온 신씨는 “제게는 중요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이야기만 담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교도소에 있었던 기간은 1년6개월이었지만 (그간의 삶은) 4001번으로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4001번으로 살아왔던 시간과 이제는 헤어지고, 또 다른 신정아로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 제목인 ‘4001’은 신씨의 수인번호(囚人番號)다.

신씨는 특히 학력 위조와 관련해 “학력 위조는 브로커를 통했든 아니든 간에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력 위조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직접) 위조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제 사건이 컸기 때문에 미숙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일해 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정운찬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운찬 전 총리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 이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신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 전 총리의 한 측근도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책을 팔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세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자니 정 전 총리가 무슨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신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새만금으로 하나되는 군산, 그 화려한 비상!

2011 군산 새만금 축제







일시 | 2011년 4.8 (금) ~ 4.24 (일) [17일간]

장소 | 은파관광지(주무대), 월명종합경기장, 수산물센터일원 외

행사내용 | 군산새만금축제 퍼레이드 및 개막식_ 군산시 복지·평생학습엑스포_ 군산시 노사가요제_ 군산수산물축제_ 새만금가요제_ 새만금관광벚꽃아가씨선발대회_ 문화예술행사_ 체육행사 등

http://tour.gunsan.go.kr